

새만금, 세계잼버리로 '들썩' ... 고창군 손님맞이 '분주'

내일부터 8월 10일까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1만여명 방문 예정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 관광프로그램...4개국 대원 고창 습지 등 체험

고창군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창군은 8월1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전세계 잼버리 참가자 중 1만명이 고창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형 홍보탑을 세우고 거리 곳곳에 환영 가로등을 설치했다. 대회 장소와 가까운 고창에는 대회전 입국자들이 대거 방문할 예정이다. 31일부터 이틀간 사전 관광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아이슬란드, 폴란드, 파라과이 등 4개국 스카우트 대원들과 관계자들이 고창을 방문한다. 이들은 상하농원과 은곡습지, 고인돌공원 등을 찾아 치즈만들기와 습지트레킹 등 체험활동을 이어가며 고창의 자연·역사·문화를 배운다. 잼버리가 본격 개막하는 2일부터는 고창읍성과 선운사에서 집중적으로 영외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로 어울리며 음성 성곽길을 걷고 선운사에서 다도체험과 템플스테이, 숲 어드벤처 등을 통해 고창 전통문화를 체험한다. 특히 고창군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지역학생 연계 프로그램(8월2~4일) 등이 운영되면서 고창군 관내 청소년들과 세계각국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된다. 군은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 안전하고 재미있는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종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 중 하나"라며 "장차 세계를 이끌어갈 예비 리더들이 고창을 찾는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고창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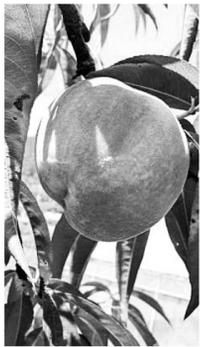
고창의 대표 관광지 고창읍성을 배경으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대원들을 위한 환영배너가 펼쳐지고 있다.

남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2개 추가

총 32개 품목...다음달 중 공급업체 공모

남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 농·특산물 12종을 추가 선정했다. 남원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답례품을 신규 발굴하기로 하고 지난 4일부터 2주간 자체 발굴과 제안 공모를 통해 모두 57개 품목을 접수받았다. 시는 이중 지역의 대표성, 가격의 적정성,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2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 새로 선정된 품목은 포도와 사인머스켓, 복숭아(사진), 딸기, 특산품꾸러미, 산나물꾸러미, 전통 한과, 수제떡, 베이커리, 수제맥주, 과일장, 밀키트 등이다. 시는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된 12개 품목과 기존 20개 품목 등 총 32개 품목에 대해 8월 중 공급업체를 공모할 계획이다. 대상은 남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답례품

의 생산·보관시설 및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업체다. 관련 공고는 8월 초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발전을 위해 기부해주시는 기부자들의 격려와 응원에 보답하는 뜻에서 남원시를 대표하는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답례품과 기금사업을 지속 발굴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복지·행정 서비스' 시민 아이디어 정책 반영

다음달 25일까지 공모...축제 활성화 아이디어·민원 개선책 등

정읍시가 시민 복지와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민참여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시정 운영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참여 열린시정'이라는 시정목표를 실천해 주민 편의 향상과 주민밀착형 정책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다. 공모는 8월25일까지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채택된 제안은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등 절차를

거쳐 시 정책에 반영된다. 공모주제는 특별주제와 일반주제로 나뉜다. 특별주제는 정읍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이고, 일반주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개선 또는 시행해야 할 정책이다. 시는 심사를 통해 특별주제 분야에서 최우수 1명과 우수 1명, 일반주제 분야에서 최우수 1명과 우수 1명, 장려 3명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시상금(정읍시상장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정읍시 홈페이지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 스스로 정읍시의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달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제안 공모를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보장기금 심의위원 15명 위촉...최저가 이하 하락시 차액 지원

고창군이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운용심의위원회는 노형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8명과 조민규 군의원, 이문구 농협 고창지부장, 농업관련 단체를 포함한 위촉직 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은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고창군의 주요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추진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기금 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최저가격

결정 등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주요농산물 지원대상 품목과 기금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및 기금설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며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준비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노형수 보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을 통해 고창군의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으로 농가 영농의욕을 높이고 나아가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활발한 협조와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비 지원
정읍농기센터, 8월 16일까지 접수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삭기, 스키로우더, 지게차)의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모집한다. 정읍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참가자 전원에게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31일부터 8월1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미만 농업인이다.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675명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한 바 있다. 특히 기계 안전 사용 노하우 등을 익히는데 큰 역할을 해 호응을 얻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하늘·땅에서 본 '남원 농촌 풍경' 사진 공모

9월까지 접수...총 23점 시상

남원시가 지역 농촌 풍경을 앵글로 잡은 사진공모전을 실시한다. 남원시는 농촌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제4회 남원시 농촌자원·경관 사진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품 대상은 2022년 이후 촬영된 사진이다. 남원지역 농촌의 자원·경관 또는 풍경을 담은 일반

사진 분야와 드론 촬영 항공사진 분야다. 드론 촬영 항공사진 분야는 올해 신설됐다.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 후 10월 전문가 심사를 통해 2개 분야에서 대상과 금상, 은상 각 2점을 비롯해 동상 4점, 입선작 13점 등 총 23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농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절판 판매중

이방인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